

-(으)나 마나

결과가 뻔함 — 하나 마나, 해 봐도 소용없음

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어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. 다른 몇몇 반복 형태처럼 동사와 말다를 짝지어 만듭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나 마나	보다 → 보나 마나
받침으로 끝남	-으나 마나	먹다 → 먹으나 마나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나 마나
부사처럼 쓰임	보나 마나	뻔하다, 확인할 필요 없음
뒤 절	이미 아는 결과	또 늦을 거예요
시제 불가	어간 그대로만	봤으나 마나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어간에는 -나 마나, 받침 어간에는 -으나 마나가 붙고, ㄹ 어간에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. 만드나 마나는 틀리며, ㄹ이 탈락해 만드나 마나가 됩니다.

뒤 절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말합니다: 보나 마나 또 늦을 거예요 — 볼 필요도 없이 또 늦을 것이라는 뜻입니다.

주로 쓰이는 동사는 몇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: 보나 마나, 물어보나 마나, 가나 마나, 해 보나 마나. 보나 마나는 거의 ‘뻔히, 틀림없이’라는 뜻의 부사처럼 굳어졌습니다.

자신 있으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이며, 구어에 어울립니다.

■ 예문

- 1 보나 마나 또 늦을 거예요.
- 2 물어보나 마나 안 된다고 할 겁니다.
- 3 가나 마나 문은 닫혀 있을 텐데요.
- 4 이런 식으로는 해 보나 마나입니다.
- 5 직접 만드나 마나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.
- 6 먹으나 마나 배가 찢 것 같지 않다.

■ 비교

-아/어 봤자
매우 비슷합니다. 봤자는 시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이고, -(으)나 마나는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.

해 봤자 소용없어요. (해도 소용없다) / 보나 마나 늦을 거예요. (뻔히 늦을 것이다)

-(으)ㄹ락 말락 하다
같은 말다 짝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 락 말락은 어떤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상태이고, 나 마나는 행동과 상관없이 정해진 결과입니다.

당을락 말락 했다. (당을 듯 말 듯 했다) / 보나 마나 늦는다. (틀림없이 늦는다)

-(으)ㄹ 리가 없다
리가 없다는 가능성을 딱 잘라 부정하고, 나 마나는 확인해 봐도 새로 알게 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.

올 리가 없어요. (오지 않을 것이다) / 보나 마나 안 올 거예요. (볼 것도 없이 안 올 것이다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드나 마나 결과는 비슷해요.
- 직접 만드나 마나 결과는 비슷해요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-는, -느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-나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어제 봤으나 마나 늦었어요.
- 보나 마나 또 늦을 거예요.
- 이 어미에는 시제가 붙지 않으며, 지난 결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합니다.
- ✗ 보나 마나 결과가 궁금합니다.
- 보나 마나 결과는 뻔합니다.
- 뒤 절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말합니다. 궁금해하는 내용은 이 표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.